

전기전자

Dragon's Tech Tree #37. 일본 조명시장, LED 덕분에 YoY +13% 순항 중

2014. 7. 17

전기전자
Analyst 김현용, CFA
02-3779-8955
hyunyong.kim@etrade.co.kr

글로벌 조명시장의 선행지표, 일본 LED 비중은 YTD 기준 41.4%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하는 조명시장 5월 자료가 발표되었다. YoY +3.7%로 올해 들어 유일하게 한 자리 성장에 머물렀던 4월을 뒤로 하고, YoY +11.8%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5월 LED 조명기구 매출액은 YoY +49.1% 급증하며 올해 YTD 기준 LED의 시장 비중은 41.4%(YoY +6.8%P)를 나타냈다. 지난해 역성장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시장도 일본을 뒤따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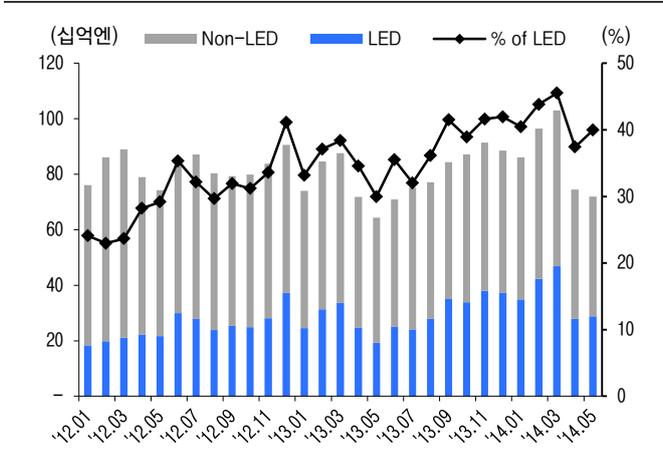
일본은 이미 조명기구의 40%, 램프의 20%가 LED

LED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빠르게 확산되며 2012년까지 초고속 성장하던 일본 시장은 작년 돌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가파른 보급 증가로 성장률을 유지할만큼 수요 증가가 일시적으로 없었던 점에 기인한다. 그 결과 작년 LED 조명기구 시장은 3,443억엔으로 전년비 13% 증가에 그쳤고, 전체 일본 조명시장은 9,466억엔으로 전년비 4.8%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5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확연히 분위기가 돌아선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체 조명시장은 YoY +1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LED 조명기구는 금액기준으로 동기간 YoY +35%나 증가했다. LED가 충분히 보급된 것으로 보여지는 일본의 경우도 시장 성장성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2009년부터 일본에 보급된 누적 LED 조명은 아직 2억개가 채 되지 않는다. 보급률은 이제 겨우 6%를 조금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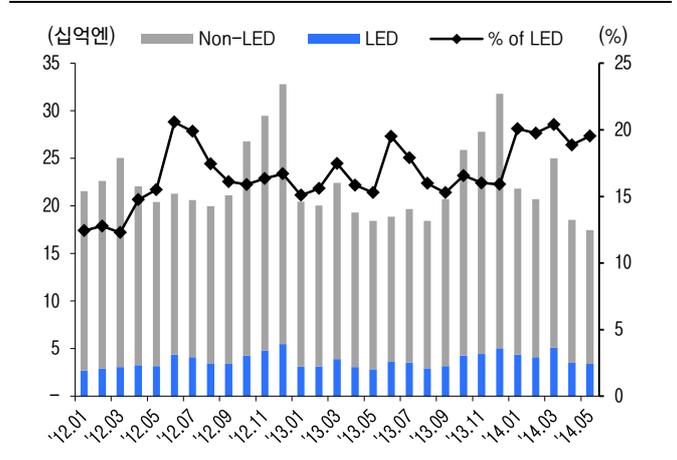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보던 일본 LED 조명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물며 이제 막 시작한 미국과 중국은 어떻겠는가? 산업 내 중국발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치킨게임 우려가 상존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요 급증 구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명에 최적화된 제품 믹스를 갖추고, 성장 시장에 베풀어주는 업체들은 분명히 실적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최근 대만 업체 에픽스타와 에버라이트가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계절적 수요 영향으로 BLU 중심의 대만 업체들도 실적이 개선되었다. 계절적 수요 증가와 하반기 조명 확산이 맞물리며 LED에 대한 시장 관심이 다시 한 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일본 조명기구 시장 LED 비중 추이



자료: METI,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일본 조명용 램프시장 LED 비중 추이



자료: METI,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현웅)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